

고려 충렬왕때의 대표적 천문학자

伍允孚(? ~ 1304년)

「고려사」 열전(列傳)편에는 '방기(方技)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몇명의 인물이 소개되어 있다. '열전'이란 고려 시대에 활약했던 주요 인물들의 전기(傳記)라는 뜻이다. 오윤부(伍允孚, ? ~ 1304년)도 이 부분에 등장하는 고려 충렬왕때의 인물이다.

이 부분 '방기'에 대해서 「고려사」에는 이런 설명이 보인다. — '군자라면 비록 자랑스레 여길 바가 아니지만 나라에 없어서는 안되는 재주'를 방기라 부른다는 것이다. 오윤부는 바로 그런 재주를 가졌던 인물로 고려의 역사에 뚜렷하게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점쟁이'라 불러도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요즘의 점쟁이 보다는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훨씬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또 크게 존중받았던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충렬왕 원년(1275년) 5월 지태사국사(知太史局事) 오윤부가 고려의 사일(社日)을 바꿨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사일이란 토지의 신(社)에게 제사지내는 날이란 뜻인데, 그 때까지 고려는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의 마지막 무일(戊日)을 사일로 삼았으나, 송 나라와 원 나라의 역서를 보면 모두 첫 무일을 사일로 하고 있으니, 고려도 이를 따라 고치자고 건의하여 임금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기록은 오윤부가 당대의 대표적 천문학자였음을 알려 준다.

오윤부는 당시 태사국의 지사였는데, 태사국이란 말하자면 당시의 국립천문대를 가리킨다. 실제로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고, 동시에 점치는 전문가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분명히 풍수지리에도 어느 정도 권위있는 전문가였을 것 같다. 실제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천문관으로 일했다고도 밝혀져 있다. 또 그는 매일 밤 하늘을 관측하는 일에 몰두하여 병들지

않는 한 거르지 않고 하늘을 관찰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 때문에 오윤부는 천문도도 만들어 낸 것으로 밝혀져 있다.

최초의 천문도 직접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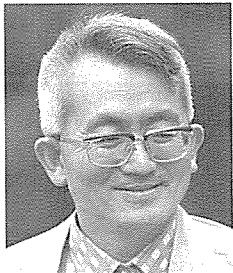
그가 만든 천문도가 어떤 규모의 것이며, 또 얼마나 상세하고, 당시의 다른 천문도에 비해 어느 점에서 우수했던지 밝힐 수가 없다. 지금은 그 천문도의 흔적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천문도가 후에 천문관들이 참고하는 천문도로 사용되었다니 상당한 수준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 역사에는 몇 차례 천문도 기록이 있지만, 천문도를 직접 만든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기는 오윤부가 처음이다.

매일 밤 천문을 관측한 사람답게 그는 이상한 천문 현상이 관측되면 언제든지 임금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일관(日官)이라는 명칭이 붙어 다니기도 한다. 지금으로 치자면 천문학자라는 말도 되지만, 그 반대로 점성술사라는 명칭도 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별과는 상관 없이도 언제나 화제가 되었던 모양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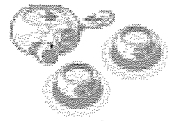
충렬왕 5년(1279년) 11월 계축일에 화성이 달을 가렸다. 문창유, 오윤부가 울면서 왕께 아뢰기를 “화성이 달을 가리는 것은 실로 예사 재변이 아니오니, 중에게 밥을 먹고 부처를 섬기는 일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시설을 경영하는 일을 모두 삼가서 재변을 가시게 하소서”하니 이를 따랐다.

임금은 승지 등과 상의하여 신하들에게 나라 일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올리라고 명하고 궁궐 짓는데 동원되어 있던 인부들은 풀어 보냈다. 자연의 재변이 있을 때 신하와 백성에게 정치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는 일, 그리고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덜어주려는 노력 등은 옛날 임금이 하지 않을 수 없던 행동이었다.

이렇게 임금이 구언(求言)을 하고 또 부역이나 세금



朴星來
〈한국의국어대사학과 교수/과학사〉



고려 충렬왕때의 대표적 천문학자 오윤부(伍允孚)는 풍수지리와 점술로도 이름을 떨쳤다. 오윤부는 매일밤 하늘을 관측하여 천문도도 직접 만들었으며 임금의 신임을 받아 고려의 사일(社日) 즉 토지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날까지 바꾸어 놓은 사람이다. 또 천재지변이 있을때마다 그의 예언이 적중하여 점술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자 원나라의 세조도 그를 불러 점을 쳐서 그의 이름은 더욱 고명해졌다고 한다.

을 덜어주는 일은 훌륭한 왕의 태도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

천재지변 등 예언 적중

충렬왕 9년(1283년) 4월 무신일 밤에 불덩이 같이 붉고 말(斗)같이 큰 것이 점점 넓어져 돛자리처럼 되다가 순창궁(順昌宮)에 떨어지고 유성이 또 잇달아 떨어지더니, 바람이 갑자기 불고 불이 궁중에서 일어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 왕이 문창유, 오윤부를 불러 이르기를, “일찌기 화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어찌하여 그런 줄을 알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늘의 꾸지람이 분명하니 이것은 오히려 작은 재변입니다” 하였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다.

그 해 9월에는 오윤부가 “천변이 무섭다” 하면서 소재도량(消災道場)을 펼치기를 청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에 대해서 어느 관리는 “천변을 어찌 불교의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덕을 닦으라고 청하지 않느냐?” 했다는 논평도 보인다. 5년 뒤인 1288년 8월에는 오윤부가 별에 변괴가 있음을 왕에게 아뢰어 공주의 땅에서 얻은 곡식을 돌려 백관의 녹봉에 충당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공주라는 사람은 원 나라에서 시집와서 고려 임금의 아내가 되어 있던 사람을 가리킨다. 몽고 공주로서 이 땅에 와서 왕후가 되어 있던 그녀에게는 고려가 낯설고 어려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잘 처신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오윤부는 공주의 곡식을 관리들 녹봉으로 전용하게 한 것 말고도, 1276년에는 공주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불길하다 하여 막아 준 일도 있고, 1278년 4월에는 궁궐을 짓겠다는 공주의 뜻을 어겼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궁궐 건설을 막은 이유는 그 해에 공사를 시작하면 불길하다는 그의 주장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윤부는 당대 최고의 점쟁이로서 왕후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사

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78년(충렬 4년) 9월에 임금은 그를 시켜 다음해 피서갈 장소를 고르게 했는데, 그 결과 서경(지금 평양)이 선택되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충렬왕 7년(1280년) 2월 경인일에 용화원(龍化院) 못에서 고기가 죽어 수없이 떠올랐다.

이에 대해 오윤부가 말하기를 “갑술년(원종 15년)에 동지(東池)에서 이런 괴변이 있었는데,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왕에게 수신하고 반성하기를 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 다음에 이어 「고려사」는 오윤부가 진실하고 소박하여 재변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간하여 숨기지 않으니 왕이 그를 꺼려하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정말로 그는 거리낌 없이 그의 소신대로 점술의 결과를 임금에게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나라 세조도 그를 불러

여하튼 그는 예언을 잘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하루 저녁에는 별이 천주원(天樽垣)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반드시 술 잘 먹는 사람이 사신으로 오리라”하고, 어떤 날에는 별이 여림원(女林垣)을 침범하자 “반드시 사신이 와서 처녀를 간택해 갈 것”이라 했는데, 두 경우 모두 예언이 적중했다. 또 원 나라의 세조(世祖)가 그를 불러 점을 쳐서 그의 이름은 더욱 고명해졌다고도 한다. 한번은 고려 왕이 원 세조를 도와 전쟁에 나가게 되어 평양까지 군사를 이끌고 행차했다. 왕은 관리 한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오윤부가 점쳐 말하기를 아무날에는 그 관리가 돌아오고, 임금도 전쟁에 참가할 필요 없이 되돌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했다. 그날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의 예언은 적중하지 않고 있었다. 임금은 오윤부를 잡아가 두라고 명했다. 그러자 그는 “오늘 해가 아직 남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했다. 정말로 얼마 뒤에 그 관리가 먼지를 날리며 말을 달려 돌아와 임금에게 보고했다. 임금에게 전쟁으로 갈 필요 없이 되돌아가도 좋다는 소식이었다. ㉟